



강원랜드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18 하이원 나눔·키움 장학생(대학) 선발 공모 안내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폐광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들의 학업 여건을 지원하여 지역의후예를 양성코자 아래와 같이 「2018 하이원 나눔·키움 장학생(대학) 선발 공모」를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3.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2018 하이원 나눔·키움 장학생(대학) 선발 공모

나. 공모기간 : 2018. 8. 20(월) ~ 9. 5(수)

다. 공모대상 :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內 고교 출신 대학생

라. 신청기준

구 분	하이원 나눔 장학(구. 일반부문)	하이원 키움 장학(구. 우수부문)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저소득층(중위소득 80% 이하)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졸업학기(조기졸업자) 최소 3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 졸업학기(조기졸업자) 최소 3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균평점	3.0/4.5점(2.8/4.3점) 이상	3.5/4.5점(3.3/4.3점) 이상

※ 휴학생 및 2018년 타장학금 2백만원 이상 수혜자 신청 불가(등록금 제외)

마. 장학금액 : 360만원

※ 학습보조금(생활비 등)으로, 학기당 180만원 지원(학기별 기준 충족)

必)

바. 선발인원 : 총 110명

첨 부 : 1. 2018 하이원 나눔?키움 장학생(대학) 선발 공모 요강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정선군수, 태백시장, 영월군수, 삼척시장,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대학교총장, 고려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총장, 가톨릭대학교총장, 목원대학교총장, 경희대학교총장, 강릉영동대학교총장, 한림성심대학교총장, 안동대학교총장, 한림대학교총장, 동원과학기술대학교총장,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대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우송대학교총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화여자대학교총장, 한성대학교총장, 대구한의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총장, 대구대학교총장, 세명대학교총장, 가톨릭관동대학교총장, 인하대학교총장, 대전보건대학교총장, 안동과학대학교총장, 청주교육대학교총장, 한양대학교총장, 상지영서대학교총장, 강원관광대학교총장, 한국항공대학교총장,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대전대학교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충북대학교총장, 중부대학교총장, 연성대학교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순천향대학교총장, 계원예술대학교총장, 서울예술대학교총장, 한국영상대학교총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경동대학교총장,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국민대학교총장, 영진전문대학교총장, 호서대학교총장, 경북전문대학교총장, 세종대학교총장, 세경대학교총장, 부경대학교총장, 서원대학교총장, 대원대학교총장, 성결대학교총장, 송실대학교총장, 김천대학교총장, 호산대학교총장, 포항대학교총장, 상지대학교총장, 중원대학교총장, 종신대학교총장,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명지대학교총장, 가톨릭상지대학교총장, 백석대학교총장, 부산대학교총장, 경기과학기술대학교총장, 순복음총회신학교총장, 춘천교육대학교총장, 건국대학교총장, 서울기독교대학교총장, 한국교통대학교총장, 아주대학교총장, 계명대학교총장, 금오공과대학교총장, 동국대학교총장, 경북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총장, 용인대학교총장, 영남대학교총장, 배재대학교총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인덕대학교총장, 대학(한중대학교총장), 초당대학교총장, 수원과학대학교총장, 김해대학교총장, 상명대학교총장, 동신대학교총장, 동양대학교총장, 을지대학교총장, 경운대학교총장, 협성대학교총장, 대경대학교총장, 두원공과대학교총장, 충남대학교총장

수신자

과장

박지현

사회공헌사업팀장

전결 08/21
박은희

협조자

시행 사회공헌사업팀-1643 (2018.08.21.) 접수
17:26:27

학생과-9311 (2018.08.22.)

우 26155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 55

/ <http://www.high1.com>

전화 033-590-5987

/전송 033-590-5980

/ qkrwl9041@kangwonland.com

/ 공개